

전체 주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인
교회의 건축을 위한
주님의 회복의 내재적인 의미

메시지 5
하나님의 집의 건축
(1)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성경: 마16:18, 엡2:21-22, 3:17상, 4:16, 벧전2:5, 계21:2-3

- I.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건축이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건축의 책이다—창2:22, 28:10-22, 마16:18, 엡2:21-22, 3:17상, 4:16, 벧전2:5, 계3:12, 21:2-3.
- II.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엡1:5, 9, 출 25:8, 40:2-3.
- III. 성경의 중심적이고도 신성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인성의 연합인 신성한 건축을 추구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분 자신에 의해 구속되고 그분 자신과 연합된 살아 있는 사람들로 된 살아 있는 구성체를 추구하고 계신다—요14:20, 요일4:15.
 - A. 하나님의 건축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고 사람을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어 들어가는 것이다—엡3:17상.
 - B.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건축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에게 상호 거처가 되는 그러한 건축물을 갖기 원하신다—요15:4상, 계21:2-3, 22.
- IV. 하나님의 건축물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다—딤후3:15-16, 요17:22, 엡3:19하, 21.
 - A.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영적인 건축물로 건축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이다—창1:26, 벧전2:5, 9.
 - B. 성도들을 하나의 단체적인 표현으로 건축하는 것이 참된 간증이다—계1:2, 12, 20.
- V.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의 확대이다—요3:29상, 30상, 골2:19.
 - A. 합당한 건축물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단체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게 하는, 삼일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이다—엡2:21-22, 골2:19.
 - B. 하나님의 건축은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오시어 우리

가 그분의 한 표현,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이 되게 하는 것이다—엡3:17상, 19하, 21.

VI. 에스겔서에서 주님께서는 신언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집을 그려 보이라”고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그 본을 측량하게 하라”고 하셨다—43:10.

- A. 하나님의 의도는 그 집에 의해 그분의 백성의 생활과 행실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의해 그들을 측량하셨다.
 - 1. 하나님의 집이 그들의 규정이 되어야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분부하시어 그들에게 그 전의 형태를 보이라 하신 것이다.
 - 2.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의 본이고, 백성들이 이 본의 빛 안에서 자신들을 점검한다면 그들의 단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11절, 41:15-20.
 - 3. 그 백성의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과 부합되어야 한다—고전3:16-17.
- B. 에스겔서에 의하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는 그분의 집에 따른 것이다. 각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집의 치수에 의해 측량되고 점검받아야 한다—43:10.
 - 1. 우리의 행동과 행실은 도덕적인 규정들이나 영적인 원칙들에 의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의해 점검되어야 한다—딤후3:15-16.
 - 2. 우리의 주요 관심은 우리의 처신하는 법이나 신령하게 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맞느냐에 있어야 한다—고전14:12.
 - 3.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하는 바가 하나님의 건축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3:10-15.
 - 4. 몸은 우리의 영성을 테스트하는 가장 큰 테스트이다. 우리가 몸의 생활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12:23-27.
 - 5. 영성은 몸의 문제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몸 안에 있는 것이고, 몸을 통한 것이며, 몸을 위한 것이다—엡4:16.

VII.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단체적인 체험—벤엘의 하나님 즉, 엘 벤엘이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의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전환이 있다—1, 3, 6-7, 15, 엡3:17-21, 4:4-6.

- A. 이전에 하나님은 개인들의 하나님이셨다. 벤엘에서 그분은 또한 단체적인 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시다.
- B. 벤엘은 그리스도의 몸인 단체적인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벤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 야곱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단체적인 체험으로 전진했다—고전12:12.
- C. 세겔에 있는 제단은 개인적인 제단이지만 벤엘에 있는 제단은 단체적인 제단—하나님의 집을 위한 제단—이다—창35:6-7.

VIII.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하고 계신다는 사상에 의해 빛 비춤받아야 하고 그러한 사상으로 완전히 적셔져야 한다—28:16-19, 마16:18, 엡2:21-22, 계21:2-3.

IX. 주님의 갈망에 따라 건축된 교회만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주님께는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필요하다—마16:18-19, 27-28.